

江原大學校의 教養教育

崔 雄
(江原大 國語國文學科)

1. 머리말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학생들에게 각종 지식을 탐구·통합하여 개인과 사회 및 자연을 이해하고 온당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전문 교육에 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의 대학 중 이미 몇 개의 대학에서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교양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개편 중에 있고, 교양교육의 목적과 이념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교양교육의 제반 성격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반성적인 논의와 새로운 제안들이 마련되고 있음¹⁾은 지금까지의 교양교육이 중요성에 비하여 실효가 없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실로 많은 문제들이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 질병,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불균형, 공해, 경제적 문제, 이념과 가치의 혼란, 국제간의 긴장 등은 단순한 사회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인간의 생존 문제를 결정짓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다. 따

라서 전문 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큰 것이고, 전국의 각 대학, 나아가 세계의 각 대학이 전문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문 교육의 중시 현상이 상대적으로 교양교육을 가볍게 보는 현상을 초래했음도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학이 교양교육과 전문 교육의 통합성 내지 균형성을 상실해 감에 따라 어느 일정한 전문 분야에 국한된, 따라서 편협된 지식을 가진 전문인 및 기술인으로서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음이 어제·오늘의 현실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지식이나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 대학이 학문의 전문화로 인한 지적 편협성과 불균형을 극복할 때, 전문화된 지식이나 기술은 선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고, 바로 그러하게끔 지적인 편협성과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교양교육에서 찾아질 수 있을 때, 그런 교양교육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으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강원대학교에서는 2년간의 계획 기간을 거쳐 교양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1984 학년도 신입생부터 개편된 과정을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제22호(1986. 7).

적용시킨 지 3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강원대학교의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에 의하면 교양교육은 3학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말한 3년이란 시점은 1984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에 의한 교양교육 이수 완료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강원대학교의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 시행에 따른 재반 사례를 1984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를 예로 하여 논의해 보는 것도 개편 시행 이후 제1기를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바로 그런 뜻에서 이 글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하였던 강원대학교의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에 관한 사례 보고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 글을 쓰는 목적이 개편·시행되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 과정을 하나의 본보기로 알린다거나 내세우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내용과 시행 현황을 예시하고, 간단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나름대로의 결산을 해봄으로써 좀 더 나은 교양교육을 위한 대책 수립에 참고가 되었으면 할 뿐이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학사 행정이나 교양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리나 뚜렷한 주장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지 못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따라서 '교양교육 과정 개편의 경과와 내용'은 강원대학교 교양교육 개편 소위원회 보고서인 「교양교육과 창조적 지성인」²⁾에 의거하였고,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시행에 대한 실험적 평가'는 교수들의 자문,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집약시켜 논의하는 방향을 택하는 정도로 그쳤다. 교수들의 자문은 교양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10여분을 상대로 해서 구했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순수 인문과학·사회과학·순수 자연과학·응용 자연과학을 균등하게 구분하여 3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문 및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개설 강좌의 타당성·교재·교육 방법·교육 환경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요소들은 교육의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위상을 절치는 데 있어서도 그 만큼 중요한 인자들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서는 위와 같은 자문 및 조사 결과에서 추출된 것을 토대로 몇 개의 제안을 시도해 보았다.

2. 교양교육 과정 개편의 경과와 내용

1) 연혁과 배경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은 1982년 5월 5일에 열린 '강원대학교 기획 위원회'에서 발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강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의 수립이었던 바, 그 가운데 교양교육 과정을 사회적·학문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것이 제의됨에 따라 기획 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된 '교양교육 분과 위원회(가칭)'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에 기탁된 사항은 전국 국립 및 일부 사립 대학을 방문하여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양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고, 이에 따라 이 위원회 위원은 1982년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7개의 국립 대학과 12개의 사립 대학을 방문하여 부여된 소임을 수행하였다. 이 위원회가 파악한 내용은 각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전체 교육 과정 가운데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개설된 교양 과목과 교양교육의 관리 및 운영 체제, 교양교육 보조 프로그램, 담당 교수 배정 상황, 교양교육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각 대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양교육 개선 등이었다. 이 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함으로써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 과정 개편 작업에 있어서 디딤돌로서의 구실을 다하였다.

1982년 9월 7일 '강원대학교 기획 위원회'에서 적합성(relevance) 있는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교양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

2) 강원대학교 교양교육 개편 소위원회, 교양교육과 창조적 지성인, 강원대학교 반간실, 1984.

편하기 위한 기구 설치가 검토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1982년 9월 10일 '강원대학교 교양교육 개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칭함)가 강원대학교 교수 6명을 위원으로 하여 발족되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는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의 기본 방향과 개편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알맞은 교양교육 과정 모형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소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교양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주 총장은 '교양교육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³⁾이라는 주제 아래 몇 가지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앞서의 '교양교육 분과 위원회'가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 실태 파악에서 밝힌 내용과 아울러 기존의 교양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기술삼아 새로운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소위원회'가 마련하는 데에 기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가 지적한 기존의 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새로운 교양교육 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1) 기존의 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

첫째, 기존의 교양교육은 개념적 혼란과 의견의 불일치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교양교육은 전공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견해, 고전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라는 견해, 전문화된 교육을 보충하는 폭 넓은 문화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견해 등이 엇갈리고 있어서 개념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교양교육은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양교육 과정에는 한국 사회의 요청, 미래 사회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 한국 사상과 문화, 새로운 학문 발전,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탐구된 새로운 지식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기존의 교양교육 과정은 종합성을 상실하고 있다. 교양교육은 각 학문 분야가 전문화되고 각 직업 교육이 다기화되기 때문에 종합적

인 판단력·식견 및 지성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 교양교육은 철학·역사·국어·영어 등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네째, 기존의 교양교육은 계열성을 상실하고 있다. 즉, 교육은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가면서 심화 보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이 대학의 교양교육에 그대로 중복되는 것이 있다.

다섯째, 교양 과목이 대체로 1학년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1학년의 경우 전공에 대한 일체감(identity)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을 중등교육의 반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교양교육은 어느 일정한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섯째, 교양교육 과정이 대학, 계열, 학과에 따라 다르다. 심한 경우 전공 계열에 속하거나 전공에 관련된 교과(예컨대 개론 과목)를 교양 과목으로 설정한 예도 있는 바, 이는 지적 불균형과 편협성을 결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곱째, 기존의 교양교육 과정에 개설된 일부의 과목들은 계열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어 교양교육의 순수한 특성을 상실시키고 있다.

여덟째, 기존의 교양교육 과정에는 필수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개인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와 범위가 좁다. 이는 낮은 학습 등기와 저조한 학업 성취의 원인이 된다.

아홉째, 교양교육 과정의 선택 교과군이 잘못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식의 구조·의미의 영역을 고려한 선택 교과군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열째, 교양 교과의 내용이 단순한 지식의 나열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강좌가 명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때, 학생들은 그 주제에 대한 통합적 식견과 안목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교양 교과는 선정된 지식의 내적 통합성을 충분히 갖추도록 조직되어야만 한다.

열한째, 교양교육 과정에 속해 있는 도구 교

3) 앞의 책, pp.14~16.

과들의 목표가 예비하다.

열두째, 교양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가 대개의 경우 시간 강사들이다. 교양교육이 인류가 쌓아 놓은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할 때, 교육 경력이 풍부하고 학문에 대한 안목이 보다 넓은 중견 교수가 교양 강좌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열세째, 교양교육의 보조 프로그램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고, 갖추어진 경우에도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열네째, 교양교육 과정을 전담한 부서가 없는 바, 교양교육에 대한 방향타 구실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2) 새로운 교양교육 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지침

첫째, 새로운 사회적 요청, 학문의 조류,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둘째, 중핵 교육 과정(core curriculum)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 과정의 각 영역을 문체와 이슈, 또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세째, 한국의 문화 전통이나 사회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과목을 설정한다.

네째, 교양 과목의 강좌를 대폭적으로 늘려 수 강자가 각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강좌를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다섯째, 인간 이해의 모든 의미 영역(realms of meaning)에 관한 교과가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수되도록 하여 지적 불균형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정신 발달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한다.

여섯째, 자연·사회·역사·인생·학문에 대한 종합적 식견이나 지적 판단력·도덕적 책임감을 배양하도록 편성한다.

일곱째, 과목의 명칭에 강좌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편성한다.

이와 같은 교양교육 과정 개편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면서부터 '소위원회'의 활동은 가속화되어,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설정·전체 교육 과정의 개편·교양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에 관하여 1983년 5월 12일 대체적인 윤곽을 확정짓기까지 22차의 개편 작

업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으며, 그 동안에 '교양 교육 개편 전문 위원회'와 3차에 걸친 연석 회의를 가졌다.

'교양교육 개편 전문 위원회'는 1983년 3월 18일 강원대학교 교수 16명으로 조직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설정한 교양교육 과정을 각 분야별 전문가의 위치에서 과목명의 적합성, 교과 내용의 타당성, 필수 및 선택 과목의 조정, 학점의 배분, 학년별·학기별 교과 개선, 교재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소임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교양교육 과정 개편안은 1983년 5월 17일 열린 '교양교육 개편 세미나' 및 1983년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교양교육 과정의 개편과 문제'란 주제로 열린 '83 하계 교수 세미나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어 1984년 초 '소위원회' 보고서인 「교양교육과 창조적 지성인」이 나오므로 일단락되었고,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적으로 적용·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근 2년간에 걸친 부산한 활동과 진통 끝에 강원대학교의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은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2)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해답은 주관적이며 이견이 많을 수 있는 당위적·처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적과 목표 없는 교양교육에서 얻은 바가 없다고 파악한 강원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교양교육의 목적에 관한 역사적 고찰·사회적 요구·학문의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이 목적하는 인간상을 '창조적 지성인'으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창조적 지성인이란 지적 탐구 능력과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창조적 지성인은 지적 리더십과 사회적 리더십의 조화를 갖춘 인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조적 지성인으로서의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4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논

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의 배양, 사물에 관한 탐구와 이해 능력의 배양, 분석적·종합적 판단 능력의 배양, 가치 창조와 분별 능력의 배양이 곧 그것이다.

논리적 사고 능력은 언어, 논리, 수학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형식에 따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조적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지적 탐구와 여러 사실들을 체계있게 조직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물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사물에 관한 탐구와 이해 능력은 인간·사회·자연에 관한 규범적·경험과학적 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이러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뜻에서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 사물에 관한 탐구와 이해 능력의 배양은 지적 리더쉽을 가질 수 있어 창조적 지성인으로서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분석적·종합적 판단 능력은 역사, 철학, 윤리, 종교,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예술 등 인간과 관련된 세계에 내재된 의미를 어떤 맥락에서 찾아내거나 이들을 서로 관련지음으로써 인간과 관련된 세계(의미의 영역)에 관한 지적 안목을 가짐을 뜻한다. 가치 창조와 분별 능력은 종합적 판단 능력을 기초로 문화를 구성하는 예술·종교·윤리·사상은 물론 지적 탐구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가치의 추구 및 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분석적·종합적 판단 능력, 가치 창조와 분별 능력의 배양은 사회적 리더쉽을 가질 수 있어 창조적 지성인으로서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과 같은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함을 원칙으로 교양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3) 전체 교육 과정의 개편

강원대학교의 '소위원회'가 교양교육 과정 개편 작업을 시작할 때, 당면한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기존 교육 과정의 구조(교양, 전공, 일반선택 등의 과정과 각 과정에 배분된 학점)를 그대로 두고 단지 일부 교양 과목만 개편하느냐 아니면 전체 구조까지 개편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양교육 과정의 개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없는 한 교양교육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파악하여 전체 교육 과정의 구조를 재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계열 기초나 전공 이수에 폐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교양 학점을 약간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 40 학점에서 44~48 학점으로) 그런 결과 계열 기초를 포함한 전공 학점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다만 그동안 실효성이 문제되었던 일반 선택 학점이 28~38 학점에서 21~34 학점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종래 학생들이 일반 선택 학점을 편의주의적으로 체계 없이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던 경향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교양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그리고 계열별 특수성도 고려하여 전체 교육 과정의 학점율(표 1)과 같이 확정·결론지었다.

〈표 1〉 전체 교육과정의 학점

계열	과목	교 양	계열기초	전 공	일반선택
인문사회계열		48	12~23	54~65	21~32
교육계열		46	12~23	54~65	21~34
자연이공계열		44	12~24	56~68	21~33

(총 146 학점)

4) 교양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 과정 개편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웠던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지식을 선정·조직하는 일이었다. 창조적 지성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선정하는 일에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해도 그것은 항상 불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1982년 11월 2일 초안이 작성된 이후 1983년 4월 21일 '소위원회'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도 6개월 남짓이 걸렸지만 '소위원회'가 마련한 이 최종안도 그 후 '교양교육 개편 전문위원회'와의 연석 회의 및 두 차례에 걸친 '교수 세미나'를 거치는 동안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웠다.

그러나 여하튼 설정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개편의 기본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가운데 교양교육의 내용

은 선정되고 조직되었다. 각종 지식의 형식이 분류되고 가능성 여부를 판별하여 교육 영역이 설정되었고 구체적인 강좌명이 마련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학생들

이 지적 편협성과 불균형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다. 강원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양교육 과정의 영역과 강좌명을 열거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강원대학교 교양교육 과정 영역 및 강좌명

<p>1. 논리와 사고영역 ;</p> <p>論理와 思考 } 택 1 集舍과 論理 }</p>	<p>韓國美術의 理解 } 택 1 韓國音樂의 理解 } 西洋美術의 理解 } 西洋音樂의 理解 }</p>
<p>2. 자연과 사회영역 ;</p> <p>科學의 歷史와 未來 (필수) 生命의 起源과 本質 } 택 1 宇宙와 地球 } 物質의 本質과 利用 } 人間과 環境과 資源 } 韓國社會의 諸問題 (필수) 현대 경제의 문제 } 戰爭과 平和 } 택 1 法과 社會 } (여학생은 택 2) 文化와 人性 } 社會의 秩序와 變動 } 女性과 社會 }</p>	<p>6. 언어의 기술영역 ;</p> <p>言語와 生活 (필수) 文章作法 I } 택 1 文章作法 II } 英文의 理解 (필수) 英語練習 I (필수) 英語練習 II } 택 1 英語練習 III } <獨逸語 } <獨逸語練習 } <佛語 } 택 1 <佛語練習 } <中國語 } <中國語練習 } <日本語 } <日本語練習 }</p>
<p>3. 역사와 사상영역 ;</p> <p>韓國史의 理解 (필수) 韓國史와 民族精神 } 택 1 歷史의 意味 } 西洋文化의 理解 } 東洋文化의 理解 } 哲學의 理解 (필수) 現代哲學의 思潮 } 택 1 韓國思想의 理解 } 美의 意味 } 宗教와 人間 }</p>	<p>7. 전자계산영역 ;</p> <p>컴퓨터언어 I } 교양(자연계) (COBOL) } 컴퓨터언어 II } 계열기초(인문사회계) (FORTRAN) }</p> <p>8. 보건과 체육영역 ;</p> <p>體育 I (필수) 體育 II (필수) 人間과 健康 (필수) 精神衛生 } 택 1 兒童發達과 育兒 (여학생은 필수)</p>
<p>4. 윤리와 가치영역 ;</p> <p>人間과 倫理(國民倫理 I) (필수) 個人과 國家(國民倫理 II) (필수)</p>	<p>9. 군사교육영역 ;</p> <p>一般軍事教育 I } 남학생 필수 一般軍事教育 II } 一般軍事教育 III } 一般軍事教育 IV } 一般軍事教育 V } 一般軍事教育 VI }</p>
<p>5. 문학과 예술영역 ;</p> <p>韓國古典文學의 理解 } 택 1 韓國現代文學의 理解 } 西洋文學의 理解 }</p>	<p>※ 체육·군사 교육은 강좌당 1학점. 다른 것은 강좌당 2학점.</p>

그리고 각 영역별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논리와 사고** : 논리적 구조와 수의 질서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인간 생활과 학문에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 **자연과 사회**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관한 경험적·사실적 지식의 획득은 물론 객관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 방식과 이를 인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역사와 사상** : 역사·철학·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윤리와 가치** : 가치에 관한 제 이론, 윤리설,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강의를 통하여 공정한 윤리관, 도덕적 책임감, 올바른 국가·사회관을 갖도록 한다.

● **문학과 예술** : 문학, 음악, 미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문학·예술 작품에 자유로이 접할 수 있는 심미적인 능력을 기른다.

● **언어의 기술** : 국어에 대한 이해와 문장 구성의 능력을 연마하여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 국제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갖도록 한다.

● **전자 계산** : 전자 계산의 일반 원리를 이해하고 정보의 획득과 처리 방법을 학습하여 학문 연구는 물론 산업 기술 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을 기른다.

● **보건과 체육** : 체육을 통한 기초 체력 향상과 건강의 증진 그리고 보건 생활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군사 교육 영역**

기존 교양교육의 내용이나 조직에 비교해 볼 때, 개편된 그것의 내용과 조직의 특징은 우선 수강자가 그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강좌를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데 있다. 종래의 3 학점 단위가 2 학점으로 바뀐에 따라 좀더 많은 강좌를 택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많은 강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강해야 할 기본 영역을 다양화 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불균형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정신 발달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었다. 전통적인 학문 구분을 탈피, 중핵 교육 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 과정의 각 영역을 문제와 이슈 또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따라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게끔 되었다. 영역별 교육 목표를 세움으로써 강의 내용도 목표 지향적일 수 있어 교육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용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 전통이나 사회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과목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시각에서의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 주고 학문을 우리 문화에 관련시켜 토착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다.

필자의 과묵한 바로는 교양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을 이와 같이 시도한 경우를 별로 들어 본 바 없다. 따라서 그 타당성을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지만, 기존의 교양교육이 지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보완은 교양교육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5) 교육 방법·교재 개발·운영 방안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교육 방법과 교재라는 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실,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어도 실제 강의실에서의 전수 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한낱 도로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방법이나 교재의 선택 문제가 담당 교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할 내용에 가장 적절한 전수 방법과 교재를 고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원대 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양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교재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방법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시키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적 관점을 형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

터 주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에 의한 일방적 설명 위주의 강의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들과의 주제별 토론식 강의를 권장한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구 활동을 조성하고, 개인의 지식과 가치관을 어떤 원리에 따라 조직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창조적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지적 리더십을 형성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은 중핵 교육 과정의 모형을 적용한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강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접근이 시도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전문 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팀티칭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권장한다.

강좌에 따라서는 시청각 교재의 활용은 물론 현지 답사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토론식 강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강의 내용에 관련된 독서 과제를 부과함으로써 강의 내용의 폭은 물론 학생들의 이해와 탐구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편된 교양 교육 과정이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만큼 강의 내용도 목표지향적이어야 한다.

(2) 교재 개발

강좌의 내용이 새롭게 선정되고 강의 방식의 패턴에도 변화가 요구된 이상,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함이 권장되었다. 1983년 여름방학을 이용한 '83 교수 세미나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강좌 내용이 확정되면서부터 우선적으로 1984학년도에 개설될 교과목의 교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86학년도말에 이르기까지 군사 교육과 체육을 제외한 총 53개의 교양 강좌 중 18개 강좌 19권의 교재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교재는 해당 강좌가 개설되기 1년 전에 각 분야의 전문 위원을 집필 책임자로 하고 관련 학과의 교수들을 집필 위원으로 하는 인적 구성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개발 직전 교재 개발 요목을 마련하여 각 강좌별 집필 위원·전문 위원·'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교재 개

발 심의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개발된 것들이다. 교재 개발 요목에 '대하여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양교육 과정의 개편 취지와 영역별 교육 내용 설정 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배려에서였다.

참고 삼아 2학년 과정에서의 선택 과목으로 문학과 예술 영역인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와 자연과 사회 영역인 인간과 환경과 자원 강좌를 위하여 개발된 교재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재명 :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 집필자 :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교재 편찬 위원회
- 발행처 : 강원대학교 출판부
- 내 용 :

I.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

1. 한국 현대시 개관
2. 한국 현대 소설 개관
3. 한국 현대 희곡 개관
4. 한국 현대 수필 개관

II.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의 이해

1. 시

1920년대~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 17편 수록

2. 소설

1920년대~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소설 10편 수록

3. 희곡

3편 수록

4. 수필

5편 수록

III. 작품 해석의 방법과 실제

1. 역사주의적 방법
2. 형식주의적 방법
3. 심리·원형적 방법
4. 사회·윤리적 방법

IV. 한국 현대 문학과 사상

1. 한국 근대 문학 사상의 기본축
2. 국문학과 실학
3. 민족문학과 민족주의 문학
4. 대중사회와 시의 길
5. 이미지즘

집필자들의 교재 개발 요목에 따르면, 제I 장은 학생들이 어떤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할 것인가 즉, 작품의 의미망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장르별로 한국 현대 문

학의 흐름을 정리·제시해 놓은 부분이며, 제Ⅱ장은 제Ⅰ장에서 습득한 소양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 스스로 장르별로 구체적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Ⅲ장은 작품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방법과 그 실제적인 예를 명시함으로써 제Ⅱ장에서 거두었던, 작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깊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은 한국의 현대 문학이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추며 전개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을 논의한 것으로 작품 이해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 능력을 길러 준다는 강좌 목표로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짜임새를 가진 무난한 교재라고 하겠다.

이 교재에는 각 단원별로 참고 문헌 소개와 연구 과제가 설정되어 있어 토론식 강의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 교재명 : 인간과 환경
- 집필자 : 환경 과학 교재 편찬 위원회
- 발행처 : 강원대학교 출판부
- 내 용 :

I. 지구의 자연 환경

1. 지구의 구조
2. 지구의 구성 물질
3. 지구에서의 에너지
4. 지구의 변화

II. 생태계

1. 생태계
2. 생물의 집단
3. 생태계의 조화
4. 생물 군집의 천이
5. 생태계에서의 물질 순환

III. 인간 환경의 변화

1. 초기 농경 활동에 의한 환경의 변화
2. 발달된 농업 수단에 의한 환경의 변화
3. 살충제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
4. 풍업 발전에 따른 인간 환경의 변화

IV.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

1. 지질 현상의 원리와 법칙
2. 풍화와 토양
3. 침식과 지형의 변천
4. 자연재해
5. 국토의 효과적 이용

V. 자원과 환경

1. 에너지 자원
2. 광물 자원
3. 수자원

교재에 밝혀 놓은 집필자들의 서문에 따르면, 제Ⅰ장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구의 구조와 에너지 및 이들 에너지 변환에 따른 지표의 변화가 다루어진 부분이며, 제Ⅱ장은 생물권내에서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그 곳의 생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생물상의 천이와 토양 보존 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부분이다. 그리고 제Ⅲ장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인간에 의해 변화되는 환경 상태를 인간의 기술 문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알아본 부분이며 제Ⅳ장은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땅이 규정하는 자연 조건이 인류의 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부분이다. 끝으로 제Ⅴ장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자원이 가지는 의미와 이용 실태 및 미래의 자원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인간과 환경과 자원’은 인간의 생존 여부에 직결되는 공해 문제와 자원의 이용 문제를 다루는 시의성 있는 강좌이다. 인간의 생활 터전인 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기함에서부터 출발하여 땅의 생리·기술 문명의 발달과 환경의 상관 관계·자원의 보존과 이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자연을 본질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를 인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 교재에도 참고 문헌 소개와 연구 과제가 설정되어 있음은 앞의 교재와 마찬가지로이다.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는 교재 개발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중에 있거나 아직까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의 교재를 사용하거나 담당 교수의 강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 교재가 해당 분야에 있어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교재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유도 남겨 놓았다.

(3) 운영 방안

기존의 교양 과정 운영상의 주된 문제점은 1학년에서의 교양 강좌 편중 배치와 담당 교수의 비중에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고, 그것을 요약·정리해 놓으면 다음과 같다.

- 기존의 교양 과정이 1학년에 편중되었던 현상을 탈피하여 3학년까지 거의 전 학년에 걸쳐 이수하도록 한다.

- 도구 과목은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2학년 까지 이수하도록 한다.

- 교양 강좌는 되도록 교육 경력이나 연구 경력에 비추어 중견 교수가 담당하도록 하여 평생 연구한 학문의 결과와 신념이 교양교육에 반영 되도록 한다.

3.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시행에 대한 실험적 평가

1) 설정된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및 개설 강좌의 적합성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에서 설정·명시한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제시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질문했다. 이것은 곧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대한 해답을 뜻하는 것이고, 또 기존의 교양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바로 교육 목적 및 목표가 불확실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대상자 100명 중 72명이 적합하다고 했고, 28명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대부분 그 까닭으로 강의 방법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28명 중 22명)을 제시하고 있어 설정된 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명의 학생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삶에 구현시킬 수 있는 능력, 곧 심미적인 능력 배양을 목표에 추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이미 설정된 가치 창조와 분별 능력 배양이라는 목표 속에 수렴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교수들의 자문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견 제기

가 없었던 결과로 보아, 설정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는 적합성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에서 설정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환기시키면서 강좌 설정의 적합성 여부를 물었다.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선정·조직된 교육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교육의 성과는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적합하다가 63명, 불필요한 강좌가 있다고 한 경우가 24명, 보완해야 할 강좌가 있다고 한 경우가 11명, 무응답 2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불필요한 강좌가 있다고 한 경우, 그렇게 응답한 까닭으로 보아 자연·이공 계열 학생은 인문·사회 관련 강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 역도 성립하는 데에 원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을 기준으로 강좌의 중요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강좌의 의의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킨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할 강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는 몇 개의 강좌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 바, 예능 실기 강좌·심리학에 관련된 강좌를 신설하고 컴퓨터와 언어의 기술 강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좌 설정에 관한 교수들의 의견은 대체로 그 적합성을 인정하면서 몇 개의 강좌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집약되었다. 추가되어야 할 강좌로는 심리학에 관련된 강좌와 '언어와 사고' 같은 것이었는데, '언어와 사고'는 개편 당시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의의 가능성 때문에 설정되지 못한 강좌였다.

이렇게 볼 때,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에서 설정된 강좌는 전반적으로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강좌의 의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면밀한 검토에 의하여 강좌의 교체·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교재

학내에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한 경우와 외부의 교재를 사용한 경우를 놓고, 어느 쪽이 학업

성과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설정된 강좌에 알맞은 교재를 새로이 개발하도록 권장되었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종의 교재가 개발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교재에 따른 학업 성과의 비교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① 개발된 교재 쪽이 52명, ② 외부 교재 쪽이 30명, ③ 무응답 18명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①의 경우, '교재가 목표 지향적이어서 체계성을 갖추었다', '교양으로 적당한 내용이었다', '저술자가 직접 강의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기가 용이했다'는 진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②의 경우, '교재가 다루고 있는 범위가 넓어 폭 넓은 지식을 수용할 수 있었다', '수준이 높았다'는 진술이 대부분을 점하였다.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만을 놓고 볼 때, 교양 학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①의 경우는 교양 교재로서의 척도가 적용되었고, ②의 경우는 개론 과목이나 전공 성격을 띤 교재로서의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경우가 갖는 수치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도 있겠으나 개발된 교재 내용의 수준이 외부 교재의 그것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보는 학생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정은 다르다. 개중에는 개발된 교재의 내용이 고등학교 때의 그것보다 별 진전이 없는 것이었다는 견해도 나타내고 있는 바, 무응답의 경우를 새로이 개발된 교재나 외부 교재 모두 비슷하여 학업 성과를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때 개발된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대략 50% 정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교양 교재 개발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하튼 새로운 교재를 개발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이미 개발된 교재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증보의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3) 교육 방법

학생들이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오는 동안 수강한 강좌에서 적용되었던 강의 방식과 아울러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강의 방식을 질문했다. 교양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개편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권장된 것이 학생들과의 주제별 토론식 강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그 동안 수강했던 강좌들의 강의 방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90% 이상이 교수에 의한 일방적 설명 위주의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강의 방식은 설문 조사 결과, ① 주제별 토론식 12명, ② 교수에 의한 일방적 설명식 15명, ③ 주제별 토론식과 교수에 의한 설명식의 배합 69명, ④ 아무래도 상관 없음 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②의 경우가 많았던 이유로는 ①의 방식은 생소한 것으로 자신들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또 능력의 한계를 자인할 때 적합하지 않고, ②의 방식은 자율적인 탐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의 방식에 대한 교수들의 견해는 ①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수준에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②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개편 당시 이상적인 안으로 권장되었던 ①의 방식이 액면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된다.

강좌 담당 교수의 자격에 대하여 질문했다. 기존의 교양교육에서 문제된 것 중의 하나가 시간 강사에 의한 교양 강좌 담당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① 전임 교수가 담당할 경우 학업 성취에 효율적이었다—75명, ② 시간 강사가 담당할 경우 학업 성취에 효율적이었다—22명, ③ 아무래도 상관 없다—3명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①의 경우 책임감·친근감·체계적인 지도·숙련된 강의 기술·강의실 외에서의 학습 지도 보충 등이 개진되었고, ②의 경우 참신성·열의·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등을 들고 있다. 강의에 대한 참신한 자세·

열의는 전임 교수에 있어서도 확보될 수 있는 퍼스널리티의 문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②의 경우로 나타난 수치는 간과되어도 좋을 것이다.

교수들에게 같은 질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일은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어 생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진대 수강 대상자의 응답이 오히려 더 객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임 교수에 의한 교양 강좌 담당율과 교육의 성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강의 내용과 교재와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질문했다. 교양 강좌에 있어서는 교재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학업 성취에 효율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① 교재 중심일 때가 효율적이다—46명, ② 교재는 일종의 참고 도서 구실을 할 때가 효율적이다—48명, ③ 교재와는 무관한 강의일 때가 효율적이다—4명, ④ 아무래도 상관 없다—2명이었다. 교수들의 의견도 위와 같은 비율로 나누어졌다. 이 경우 교육 담당 주체자인 교수들의 이유 설명이 유용한 것인데 ①의 경우는 주로 학생들의 수준을 염두에 둔 것이고, ②의 경우는 학업 성취의 극대화를 겨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과제물 부과와 그에 대한 검토(풀이)에 대하여 질문했다. 과제물 부과는 독자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검토(풀이)는 주제별 토론식 강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① 각 강좌별로 반드시 과제물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검토(풀이)가 있었다—5명, ② 각 강좌별로 반드시 과제물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검토(풀이)는 없었다—37명, ③ 대부분의 강좌에 과제물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검토(풀이)가 있었다—20명, ④ 대부분의 강좌에 과제물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검토(풀이)는 없었다—47명, ⑤ 과제물 부과가 전혀 없었다—1명이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①—65명, ②—5명, ③—29

명, ④—0명, ⑤—1명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학업 성취도를 높게 하고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서는 각 강좌마다 반드시 과제물이 부과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검토(풀이)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4) 교육 환경

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 배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교육 환경이다. 아무리 좋은 교재와 교육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펼쳐볼 자리가 여의치 못하다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성과를 가름하는 데 있어 교육 환경의 비중 역시 큰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교육 환경은 대부분 행정 지원에 의하여 좌우되는 성질인 것이기에 논의의 초점물이에 맞추기로 한다.

교양 강좌의 반 편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수강 인원이 최대였던 경우 200 명을 초과하였고, 최소였던 경우 12명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80~100명 선이었던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학습 효과는 수강 인원이 적었던 경우일수록 있었다고 대답되었다. 교수들의 의견도 동일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강좌의 성격에 따라 반 편성의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수강 인원이 많을 경우 이상적인 강의 방식으로 권장되었던 주제별 토론식 강의라든지 과제물에 대한 검토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 기자재 등 학습에 소용되는 기기·용구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마이크 장치 불량·조명 시설의 미비·컴퓨터 시설 부족·실험실 기구의 양 부족 등이 응답되었다. 그런데 언급된 컴퓨터 시설 부족은 수업에 소용되는 것은 물론 모든 학과의 제반 업무도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나머지 것들은 시설 점검이라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어서 학습 기자재에 관한 한 별반 논의할 바가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은 교수들의 경우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강의 보조 인원으로로서의 조교에 대하여 교수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100%이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조교는 강의 준비·과제를 처리·성적 평가·실험 실습 지도 등에 있어서 교수를 보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 과정이 개편되어 갈 당시, 어디에서도 조교의 구실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고,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양교육을 위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교가 배정된 바 없음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다.

5) 기 타

지금까지 논의된 바 이외의 것으로는 도구 과목인 언어의 기술 영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강좌가 일률적으로 2 학점·2 시간·한 학기 강의로 편성되었다는 사실과 교양교육 과정 전달 기구의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수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리고 교양교육 과정의 개편이 너무 빈번하여서 수강 신청상에 애로가 많았다는 것이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를 생각할 때,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강좌들이 2 학점·2 시간·한 학기 강의로 일률 편성된 사실은 물론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용이하게 마련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다. 학생들이 졸업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이수 학점이 140학점으로 하향 조정된 속에서, 그나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강좌를 개설하여 그 속에서 여러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교 당국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졸업 학점에 대한 제정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양교육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명목상의 그것은 교무처인 것 같은데 강의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고,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는 개설 강좌의 성격에 관련된 학과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양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

육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 현상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는 동안 교양교육을 전달하는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다.

한편, 교양교육 과정의 개편이 너무 빈번하였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제도의 변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별다른 차질이 없는 한 기왕에 마련된 제도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기존의 교양교육 과정이 지녔던 허다한 문제점을 해소·극복하기 위해 개편된 현행 교양교육 과정은 큰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4. 문제점과 보완 방안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보완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본 바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설 강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 설정된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과 유기적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 개설 강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 보이는 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강좌를 선택·수강해 가는 체계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개설 강좌의 의의와 내용을 소개하는 소책자의 발간을 생각해 보았다.

둘째, 정밀한 측정과 면밀한 검토에 의해 나온 판단이라면 강좌의 교체 및 신설에도 과감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반 여건 때문에 개설되지 못한 강좌가 있다면 개설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무슨 강좌가 더 필요하고 무슨 강좌가 바뀌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뜻에서 능력 있는 교수는 계속 충원되어야 하겠고, 교양교육을 위한 전문 기구가 구성되어야만 하겠다.

셋째, 새로운 교재를 개발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이미 개발·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경우에는 수정·증보의 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

다. 이 글을 쓰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또한 개편된 교양교육 과정의 성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기한 후 두세 가지의 교재 개발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 결과 개발된 교재에 대하여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었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교재 개발은 전적으로 관련 전공 분야에 맡겨질 사항이지만 교양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교재 개발 원칙은 কে를 같이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구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네째, 주제별 토론식 강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이긴 하나 학생들의 자질 및 수강 인원수, 지금까지의 습관 등 제반 여건 때문에 강의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제별 토론식 강의와 교수에 의한 일방적 설명 위주의 강의가 배합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여건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강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임 교수에 의한 교양 강좌 담당율의 극대화는 실현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전임 교수는 현재도 꾸준히 충원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완급성만이 문제될 뿐이다.

여섯째, 교재는 필요한 것이지만 교재와 강의 내용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을 후 판단되어야만 하겠다. 이 문제는 비단 교양교육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닐진대, 교육 일반을 통해서 타당한 결론이 얻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과제를 반드시 부과해야 하겠고 그에 대한 검토(풀이)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그러나 실재는 그렇지 못하였다. 효율적인 교양교육을 위해서 교수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여덟째, 아직도 일부 강좌에 있어서는 대단위 반 편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강좌의 성격·인적 자원·시설적인 여건 때문에 기인되는 현상이겠지만, 수강 인원수와 교육 효과는 반비례하는 것이기에 어떻게든 대단위 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 과목에서의 편중 수업을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고 강좌의 성격에 따른 적정 수강 인원을 산정하여 반 편성을 한다면 어

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교양교육을 위한 조교의 배정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과 더불어 문교 당국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그렇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개설 강좌·교재 개발·강의 방식·교재와 강의 내용의 상관 관계에 수반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 기구는 필요한 것이고,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에 있어서도 이 기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개편·시행되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 과정은 교육 목적 및 목표, 개설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분명히 바람직한 짜임새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교재나 교육 방법 등 실질적인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개편 당시 가졌던 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선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음도 또한 인정해야 할 사실로서 드러났다고 하겠다. 교육 환경 및 기타의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토되었듯이 교육 조직에 있어서도 보완되어야만 할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교육의 실질적인 내용·교육 조직의 세 요소가 구별되는 것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동한시될 때 교육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에서 현행 교양교육 과정을 애써 마련한 근본적인 취지가 교양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일진대,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육 조직에 대한 보완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사례 연구로서의 이 글이 자료 수집이나 분석 방법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불원간에 진행될 강원대학교의 자체 평가(교양교육에 대한)에 하나의 자료로서 값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